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

오늘 밤에도 지난 주일에 시작했던 그리스도의 주권에 관한 주제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성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관한 시리즈에서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 즉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에 관해 논의하면서 몇 가지 선택된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하룻밤에 할 수 있는 말보다 할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제게 선택권이 있다면 지금 이 주제에 대해 새벽까지 제 영혼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면 이 자료가 수록된 <예수님에 따른 복음>이라는 책이 여러분 손에 들려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의 처리를 위해 그 책으로 미루고 오늘 밤에 다룰 시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이 샬롯 엘리엇의 "나 그대로"라는 오래된 찬송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찬송은 기독교 세계의 다른 어떤 찬송보다도 오랫동안 전도 집회에서 초대 찬송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찬송은 1836년에 작곡되었으므로 꽤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찬송은 계속 불려지고 다시 불려졌습니다. 사실, 아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매일 매시간 불리고 있을 것입니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40년 넘게 이 찬송가를 십자군 전쟁에서 사용해왔는데, 설교 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 익숙한 찬송가의 가장 친숙한 구절인 "나 그대로"는 첫 구절로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내가 한 가지 변변치 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주께로 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내가 오나이다." 이 말씀이 담고자 하는 생각은 성경의 현실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면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쫓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오기를 원하는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 시대에 복음이 침식되면서 이 특정 구절과 찬송가가 다소 교묘하게 왜곡되었습니다. 현대 메시지의 언어는 "나 그대로"와 막연하게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미의 차이는 상당히 심오합니다. 오늘날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있게 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죄 사함이나 용서를 받고 불멸의 선물, 즉 천국을 선물로 받은 다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으며, 심지어 한 유명한 성경 교사, 작가 및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옛 본성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오셔서 있는 그대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당신이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성경 컨퍼런스에서 한 유명한 연사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어지는 영생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요 요점 중 하나는 구원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된 성품은 바람직하지만, 생활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복음의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용서와 천국의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설교를 하는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생각이 널리 퍼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조건으로 그리스도께 다가갑니다. 그들은 실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용서를 구할 때 열렬히 반응합니다. 천국에 대한 전망과 죽음에 대한 승리를 제시하면 열렬히 반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특히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부패한 복음에 속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믿음은 지적인 묵인,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일 뿐이며,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약한 기만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책에 포함될 장 중 하나는 교회 역사에 따른 복음에 관한 장입니다. 초대 교회 직후에 살았던 교부들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종류의 쉬운 믿음의 복음이 항상 지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해 그 복음과 참된 복음의 차이를 가정하고 확인하면서 그것에 반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마틴 루터라는 이름의 빛나는 빛을 하나 골라보세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마틴 루터는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을까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지만 믿음은 꿈이나 인간의 환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에 대해 많은 말을 하면서도 도덕의 개선이나 선행이 뒤따르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가 바로 서고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요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자원으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생각을 떠올리고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험이 없는 인간의 조작된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비효율적이며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인용문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주석에서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능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동반합니다. 오, 믿음에 관해서는 얼마나 살아 있고, 창조적이며, 활동적이고, 강력한 것입니까? 그것은 항상 선한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 선한 일이 있는지 묻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질문이 제기되기 전에 그 일을 행하고 계속 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을 더듬으며 선한 일을 찾고 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과 선행에 대해 계속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과 빛을 불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인용문 끝을 맺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믿음, 몽상적인 믿음,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환상,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작가들의 글을 읽게 되고, 그 결과 삶이 완전히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교회 교리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인용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많은 말을 한 A.W. 핑크(1937년)가 1937년에 쓴 글을 현대로 가져와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조건을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 50년 전에도 같은 문제입니다.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는 청중에게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며 무료 선물로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그분의 피의 무한한 공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현재 정통파에 널리 퍼져 있고, 너무 자주 귀에 들어오고, 너무 깊이 마음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 개념에 도전하고 기만적이고 잘못된 것처럼 부적절하고 일방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오명을 즉시 법정에 세우는 것이며,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모욕하는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 정확히 같은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전도자들의 메시지가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전파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핑크는 "구원은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은혜는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희생하여 행사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공짜 선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꼭 움켜쥐고 있는 손이 아니라 빈 손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에는 믿음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강박해진 마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그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위를 멸시하고 그분의 명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우상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굴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설교자들은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며 천국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잘못되고 위험합니다." 인용문 끝. 같은 문제 - 같은 문제. 교회의 초기 신조에서도 볼 수 있고, 달라스 신학교의 설립자 중 한 명인 W. 그리피스 토마스 같은 사람이 주권 신앙을 부르짖을 때까지도 이 문제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교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변화된 삶을 낳는 신앙을 지지했던 초대 교부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왜 마틴 루터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A.W. 핑크나 W.H. 그리피스 토마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회개와 고백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복종하는 것을 확증하지 않는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저는 쉬운 믿음의 호소가 외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외형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복음을 쉽게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고, 통로를 따라 내려오고, 숫자를 세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 방식은 1830년대 중반 엘리엇이 '나 그대로'를 집필하던 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시스템을 개발한 찰스 G. 피니에 의해 실제로 양식화되고 대중화된 전도 방식입니다.

찰스 G. 피니는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뉴욕 북부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숙련되고 논리적인 두뇌를 가졌습니다. 그는 1821년에 회심했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전도자이자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이 인간의 선택의 결과라고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니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의지를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활성화하거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인간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작과 감정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합법적이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벤치"로

알려진 것을 개발하여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 이전, 조지 휘트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니는 사람들을 "불안한 벤치"라고 부르는 곳으로 앞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감리교에서는 "제단"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결론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중생의 역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앞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역에 대한 반응과 그의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힘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던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오는 데 외형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사실 그는 너무 성공적이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반대하는 말을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피니가 사역을 마친 후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대 뒤편으로 가보면, 그의 동료 사역자들은 신실하게 남아 있는 개종자의 수가 적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34년 12월 25일자 피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임스 보일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제가 부흥 사역자로서 수고한 현장을 살펴보고 그들의 도덕적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그곳을 떠난 후 3개월 동안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이 많은 현장들을 방문하고 재방문하면서 우리가 처음 그곳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들이 타락하고, 냉담하고, 육신적이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영으로 신음했습니다." 실제로 피니의 사역을 평가한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는 깨어났지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죄인들이 강박해지고 회의적이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복음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결단의 순간만 기다리는 복음의 부르심은 너무 알пах합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회개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완전한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부르심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에 누군가 저에게 와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무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회개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으며, 순종하며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질문은 회개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외침이 있나요? 대답이 '예'라면, 비록 메시지가 불완전하더라도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책의 서문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회심하는 사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해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회심하는 순간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모든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종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반역하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표징은 항상 깨어 있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응답해야 할 책임을 알고 느끼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얕은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몰라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불완전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회심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면

진실을 말하고 그들을 멀어지게 하여, 그들과 여러분이 거짓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확신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도록 하세요. 누가복음 14 장을 잠시 넘겨보세요. 25 절,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 예수께서 복음의 초청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초대장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 오늘 오후에 나가서 공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은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7 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탑을 쌓으려 할 때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여 탑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초를 다지고도 끝내지 못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건축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다'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어떤 왕이 전투에서 다른 왕을 만나러 떠날 때 먼저 앉아서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상대방을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지 조언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 화친의 조건을 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런, 꽤 까다로운 초대입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대가를 계산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때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상적인 믿음, 몽상적인 믿음, 환상에 불과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믿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지만, 문제는 어떤 종류의 믿음, 즉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예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주 자세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 장 23 절에 "예수께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 즉 그분이 누구이신지 믿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분을 위대한 선지자로 믿었고, 아마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고,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친히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해 증거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말하지 않으 셧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적절하지 않았고 진실하지 않았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주권에 영혼을 내어주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에서 기꺼이 돌이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얕팍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진정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회개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면 그들은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의 감정적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믿음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 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구나 죄 사함과 천국 영생의 약속을 원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 장 14 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것은 진리에서 난 것이로다' 하더라." - 물론 그것은 떡과 물고기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즉 구약성경에서 약속된 선지자, 즉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신을 데려가 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계획에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 장의 66 번째 구절에 보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그분의 강력한 가르침 이후, "너희는 나의 죽음과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헌신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 "많은 제자들이 물러나서 더 이상 그분과 함께 걷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참된 제자들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그러자 참된 신자들을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였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너희 중 마귀인 한 사람만 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순간적으로 믿고 왕으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고, 잠시 믿었다가 말씀이 어려워지자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유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 장 30 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30 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작은 성경 구절은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처음 접한 훌륭한 소개였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12 장 42 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치자들조차도 그분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다" -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들이 하나님의 승인보다 사람들의 승인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설득되지 않을까봐".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믿으려고 했습니다.

26 절을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나를 따라오게 하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오게 하라." 요한복음 15 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파, 일시적인 신자, 일시적인 제자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지고 말라 버리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불에 태워 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신앙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구절 중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구절인 야고보서 2 장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야고보서 2 장 14 절: "내 형제들아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 무엇 -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덕적 인격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19 절이 그것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귀들도 믿고 떨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악마들도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들은 믿고 뒤흔들칩니다. 당신은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앞서 있습니다. 악마들은 모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은 믿음은 악마의 믿음보다 열등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충분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3 장 16 절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나오는 "믿으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 장 24 절에 "민다-민다"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변화된 삶을 만들어냅니다. 구원과 구원의 믿음은 용서를 바라는 것, 천국을 바라는 것 그 이상이며,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기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 충고하는 말이지만 - 근본주의 복음주의에는 믿음과 행함 사이에 반드시 어떤 연관성도 허용하지 않는 성경 교사들과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 반드시 상관관계가 없다면 어떤 신앙고백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모든 신앙고백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개인 전도 핸드북의 저자 레이 샌포드는 "죽은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귀신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입니다. 제인 호지스는 그의 책 『포위된 복음』에서 "야고보서 2 장 14~26 절이 무엇을 의미하든, 선행이 참된 믿음의 필수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비 -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들의 죽은 믿음이 한때는 살아있었지만 죽었다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처음 결정을 내렸을 때는 살아있었지만 죽음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원한 구원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성도들의 인내와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한 순간에 믿었다가 다시는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작가들은 진리를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불모하고 쓸모없는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복종이나 삶의 헌신을 암시하는 용어로 믿음을 정의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은 있지만 회개하거나 헌신하는 믿음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믿음과 불충분한 믿음 사이 어딘가에 미끄러져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틈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찰스 라이리도 "신앙의 메시지와 삶의 헌신을 더한 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지스도 "구원받는 믿음은 신성한 초대에 대한 응답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현대 기독교계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실패할 수 없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신앙의 인내가 참된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신앙의 인내 또는 지속적인 신앙이 참된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저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나요?"라고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1 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도 받았으며 너희도 그 안에 서 있느니라" -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너희도 구원을 얻으리라"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굳게 붙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 장 21 절은 어떨습니까?"전에는 너희가 소외되고 적대적인 마음으로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기의 앞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죽음을 통해 육신의 몸으로 화해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23 절, "만일 네가 참으로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반대로 굳건히 믿음을 계속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소망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법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인내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몇 구절을 살펴봅시다. 성경을 히브리서 2 장으로 넘기면 빠르게 훑어보고 6~7 개의 성경 구절을 빠르게 살펴보면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 장 1 절, "이런 까닭에 우리는 들은 바를 멀리 떠나지 않도록 훨씬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변함없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을 받았다면,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찌 피하리요?" 다시 말해, "이봐, 우리는 표류하지 않는 구원을 가져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에서 벗어나면 심판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애초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3 장 14 절, "우리가" - 그리고 저는 이 14 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 "우리가 만일 우리의 확신의 처음 시작을 굳게 잡고" - 뭐라구요 - "끝까지" -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4:14: "그 이후로 우리에게 하늘을 통과하신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 6 장 11 절,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이루기 위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 장 34 절도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죄수들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재산 압류를 기꺼이 받아들였으니, 이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유와 거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내가 필요하니 자신감을 버리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것입니다." (36 절). 그 동안 "조금 동안" - 37 절 - "오실 분은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동안 나의 의로운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입니다." - 무엇 - "믿음". 그리고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영혼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으로 물러가는 자들의 것이 아니니라" - 여기 - "오직 영혼의 인내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 - 히브리서 10:39. 히브리서 12:14,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 "이것이 바로 구별됨, 경건함, 미덕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모든 사람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 장 2 절과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집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다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임이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시련은 우리의 인내심을 증명하고 우리의 인격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절, "시련을 받아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단 인정을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느니라." 영생은 "주께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믿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 - 무엇을 - "그분을 사랑하는 자" -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신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 장 12 절은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충성스럽고 인내하는 신자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12 장 후반부의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를 보세요.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든 그분을 부인하면 우리의 믿음은 죽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 몽상적인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분은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생각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믿음이 없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에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통치합니다. 우리가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즉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께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분은 그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충성스럽고 인내하는 신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불충실하고 불신앙하는 영혼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 장은 아마도 바로 그 생각의 원천일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시점이 온다면,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무엇일까요? 구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에는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포함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글쎄요, 당신은 행함을 추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 "오직 믿음만, 오직 믿음만"이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추가하면 작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자리가 없다는 진리를 옹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현대의 쉬운 믿음주의는 믿음 자체를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연약하고 일시적인 것이며,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며, 사람은 자신의 변덕에 따라 행했다가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사람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태초에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을 생성할 수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믿을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쉬운 믿음은 복음을 행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믿음을 주고받는 행위 구원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언제든지 원할 때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속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 장 8 절과 9 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학자 B.F. 웨스콧은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의 구원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어에는 중성적이고 여성적인 단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 믿음은 성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성이므로 중성 대명사를 사용하여 여성적 실체를 정의할 수 없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전체 구원 행위를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좋아요 - 훌륭합니다. 구원의 전체 행위의 일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은혜,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선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저는 그런 관점이 편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니까요. 어느 쪽이든 믿음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 장 17 절에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이 너에게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드러내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베드로는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살과 피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주셨고, 내 아버지께서 그 계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사망에 깊이 갇혀 있는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당기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47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 두 구절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내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이상일 수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믿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초자연적인 믿음만이 구원할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3 장 16 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금 고친 이 사람, 여러분이 보고 아는 사람을 강하게 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 "그리고 그를 통해 오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이 완전한 건강을 주었습니다."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고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서 믿음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에게서요. "그분을 통해 오는 이 믿음" - 그분,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1:29 - "너희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너희에게는 믿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 대단하지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권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 장 1 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 이것이 바로 그가 편지를 쓰는 대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신성한 선물인 믿음은 일시적이거나 무력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며 영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얻었다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17: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무엇 - "믿음". 그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믿음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 장 11 절에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 장 38 절이 맞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라면 내 영혼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 장 6 절을 기억하시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니" -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셋째, 구원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 빌립보서 2:13.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W.E. 바인은 믿음에 대해 "그것은 확고한 신념이며, 개인적인 행복이며, 그러한 행복에서 영감을 받은 행동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뜻하는 피스테우라는 용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원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스와 피스테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미의 차이는 전자가 후자가 만들어내는 것, 즉 순종과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일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일한 증거를 제시한다."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는 "신약성경에서 믿음은 믿음의 내적 설득과 결과의 실제 외적 결과를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순종합니다. 오,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않죠? 여러분의 믿음은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순종하지만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며, 내 육체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소망은 내게 있으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갈망하며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 저는 로마서 7장 18 절의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키텔의 위대한 저서에서 피스테우라는 특정 단어를 독일의 자유주의 학자인 루돌프 볼트만이 다루고 있는데, 그는 그 용어에 대한 전체 취급에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믿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었다면 믿는 대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당신이 하는 일을 지배합니다. 믿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모순된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즉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마지막 36 절에 바로 이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리라."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믿으면 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5 절과 16 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5 절과 16 절만 보여드리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1:15: "순결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순결하지만,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순결하지 않고 마음과 양심이 모두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혐오스럽고 불순종하며 어떤 선한 행위도 할 가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호지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참된 신자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참된 신자; "더럽고, 믿지 않고, 불결하고, 혐오스럽고, 불순종하고, 어떤 선행에도 쓸모없는".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혐오스럽고 불순종적이며 무가치하기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불순종은 불신을 증명합니다. 순종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1 세기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신실함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크게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사전에서 신실함과 믿음을 찾아보면 그리스어 출처가 있다면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실함은 함께 쓰이는데, 믿는 바에 따라 순종하는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위대한 학자 라이트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무의 길에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합니다. 신실한 사람 또는 믿는 사람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물입니다. 영구적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믿음의 또 다른 요소는 겸손입니다 - 겸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팔복만 보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은 계속해서 심령의 가난, 상함, 회개, 슬픔, 온유, 주림, 의에 대한 갈증, "자비로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겸손과 상함과 슬픔과 회개와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되며, 순종과 인내로 끝납니다. 겸손입니다 - 겸손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 장 4 절에서 "너희가 내게 오지 않으면 어린 아이와 같이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영구적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은 그것을 유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날의 감정적 느낌에 대한 기억에 근거한 구원에 집착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깊은 열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분께 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존귀하시도다"라는 베드로전서 2 장 7 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 무엇 - 소중한 - 소중한 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분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종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과거가 어떠했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 장 5 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인 호지스는 그의 책에서 "바울은 교인들의 구원에 대해 결코 염려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바울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의 청중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심을 표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들이 중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도의 마음에서 가장 먼 생각입니다." 인용문 끝부분. 그렇다면 왜 고린도후서 13 장 5 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회중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와 일련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 교회를 넘어 어떤 청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하는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믿음, 죄에 대한 겸손과 깨어짐에서 시작하여 의에 대한 순종으로 끝나는 영구적인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원한다면 기도하고 그분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구하세요. 함께 절합시다.

아버지, 오늘 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이 문제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표면만 긁어 모았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믿음을 옹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남자와 여자가 미혹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만들어 주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